

월요논단



김 성 은
제주도국제관계대사·전 몸바이 총영사

제주도를 위한 제언(3, 끝)

제주도를 위한 여덟 번째 제언은 철저히 미래 준비하자는 것이다. 제주도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7%로 고령 사회다. 머지않아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중앙정부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치매·요양 시설 등을 미리 확충하고 실버산업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해발 200m 이하는 이미 아열대에 진입했다. 도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도 바뀌어가고, 수종도 교체

해 나가면서 아열대 작목의 적극적인 도입을 비롯해 품종과 농경 방식도 기후변화에 맞게 바뀌어나가야 한다. 바다에서는 어종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들 새로운 어종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 결과 축적된 대만과 필리핀 등 남방국가 내 수산연구소들과의 적극적인 협력도 중요하다. 아홉 번째는 바다 살리기다. 바다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혜택이나 중요성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살리자는 거시적 정책이나 캠페인을 거의 본 적이 없다. 이는 어촌과 어민들만의 일이 아니다. 화학비료와 농약, 육상 양식, 축산폐수, 생활오수, 중국측에서 떠밀려오는 갯벌이모자반, 지하관정 폐공, 쓰레기 등이 관련돼 있는 만큼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바다가 살아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수산업은 물론 해양스포츠 및 해양관광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발전되는 해운업이라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열 번째는 핵심산업인 관광산업의 정책방향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태껏 나름 잘 해왔지만, 이제는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갖고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힐링의 섬'이 그 한 가지 예다. 이를 위해 제주를 슬로 시티로 만들고 모든 정책과 사업에 '구불구불'과 '둥글게'란 곡선의 개념이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 제주의 관광산업은 7명으로 압축할 수 있다. 곶감·농림·먹음·보명·사명·쉬명·자명이다. 이는 대표적으로 올레길과 오름, 각종 축제, 전통음식, 관광지, 쇼핑, 차와 커피, 숙박시설들을 말한다. 도의 관광정책은 이러한 7명을 구체화, 연계화해

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관광업은 특히 대외적인 변수가 많다. 한한령과 같은 외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처럼 국경을 초월하는 전염병,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비롯해 물가 수준, 불거리, 먹거리 등 국제경쟁력이 그러한 변수들이다. 따라서 이런 변수들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인도인 전체인구의 40%인 약 5억 2000만 명이 채식주의자인 점을 고려해 제대로 된 채식식당을 마련하고, 또 무슬림들을 위해서는 할랄 식당과 함께 공항과 호텔 내 기도실도 설치하는 것이다. 위 제언들이 제주도민들에게 제주의 현재 모습을 상기시키고 아울러, 제주의 미래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케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열린마당

올바른 난방용품 사용으로 안전한 겨울나기



강 민 옥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소방경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났다. 하지만 최근 불어닥치는 꽃샘추위와 코로나19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난방용품의 사용이 지속되고 있다. 난방용품은 전기와 불을 이용해 우리에게 안락함을 선사하는 만큼 잠재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다. 소방청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는 5만 8005건으로 전체 21만 3108건 중 27%를 차지했으며, 그 중 난방기구 사용 등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582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겨울철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세 가지 난방용품인 전기히터, 전기장판, 화목보일러의 올바른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기히터는 사용하기 전에 전선이 벗겨진 곳이 없는지, 작동 중 타는 냄새나 이상소리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높은 온도로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 또는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다음으로 전기장판은 접거나 구겨진 상태로 오래 보관했을 경우 열선이 손상돼 고장파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반드시 제조사의 사용규정에 맞게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목보일러는 구획된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고 연통 주변 벽과 천장 사이를 규정에 따라 일정 한 거리를 뒤편 하며, 적정량의 정해진 연료만을 이용해야 화재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초기 소화에 대비해 보일러실 옆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작은 습관에서 나오는 행동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3대 겨울용품 안전 수칙을 숙지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도심항공교통 실증 드론 누가 만들었나

도, 제조사 실체 없어 '당혹' ○...제주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에 사용된 드론택시의 제조사가 신뢰를 할 수 없는 중국 기업으로 밝혀지자 제주도정이 당혹. 글로벌 투자정보업체 울프팩리서치가 지난 16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해 11월 21일 송약산서 열린 '제주 드론 대전 선포식'에서 들라보트를 태우고 비행한 무인 드론택시의 제조사 이항(Ehang)이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기업이라 밝히자 이항의 주가는 하루만에 62% 이상 폭락. 도 관계자는 "시연행사는 드론택시 실증·상용화 홍보 차원이었다"며 "이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 고대로기자

주택관리 수탁기관인 주택관리공단 제주지사는 "신청자 전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22일 신청자 임박 하에 공개 제추첨을 실시해 새롭게 선정된 당첨자 명단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오류를 인정. 공단 제주지사는 "앞으로는 같은 오류가 없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설명. 강다혜기자

임대주택 당첨자 추첨 오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조성한 임대주택인 리슈빌 잔여세대 당첨자 전산 추첨 과정에서 오류가 확인되며 논란. JDC 공공임대주택 임대운영 및

서귀포시 꽃사주기 운동 전개

○...서귀포시가 코로나19로 꽃 소비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전 부서 '사무실 꽃 생활화(1Table 1Flower)' 캠페인을 전개. 시는 사무실 꽃 생활화 운동 추진하고 지역 내 화훼농가가 생산한 백합, 심비디움 등 꽃 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 시 관계자는 "농가를 대상으로 공급 가능한 꽃과 가격을 조사해 유관기관과 농업인단체 등에도 홍보해 매주 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첨언. 백규탁기자

사설

제2공항 갈등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민들은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찬성과 반대가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도민의 뜻은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찬반 단체들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아 앞으로도 후유증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라일보를 비롯한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회원사는 지난 18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일제히 발표했다.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선 제2공항 반대 47.0%, 찬성이 44.1%로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이 앞섰다. 엠브레인 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제2공항 반대 51.1%, 찬성이 43.8%로 설문과 달리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성산읍 주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두 기관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설문 조사에선 찬성이 64.9%, 반대

31.4%로, 엠브레인 조사에선 찬성 65.6%, 반대 33.0%로 각각 나타났다. 두 기관 조사에서 모두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겹칠 가량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2공항 문제로 빚어진 도민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됐다. 그런데 여론조사 이후에도 찬반 단체들의 입장은 별반 달라지지 않아 우려된다. 반대측은 19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찬성측도 이날 "여론조사 결과가 국책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며 제2공항 조속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제 공은 국토부로 넘어갔다. 국토부가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힌만큼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국책사업으로 인해 도민사회가 더 이상 갈등에 휩싸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해군기지와 같은 전철을 또다시 밟아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코로나19 확진자 속출, 봄·개학 전 큰 우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다시 이어지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달들어 설 연휴 전후 잠잠하던 신규 확진자 소식이 지난주 이후 수도권 방문자와 접촉자를 중심으로 연일 전해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박한 상황이지만 거리두기 완화에도 전 학교 개학일정 등까지 겹치면서 사태를 더 어렵게 키울 가능성 때문에 도민 모두 방역의 고삐를 새롭게 다잡아 나가야 할 상황이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설 명절을 보낸 지난 13일(0시 기준) 이후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16일 1명 발생에 이어 18일 5명, 19일 3명, 20일 3명 등으로 연속해서 발생추이를 보였다. 대부분 수도권을 방문한 도민이나 그 가족 또는 접촉자에 의한 감염 등이 주원인이다. 그간 주로 관광객에 의한 감염에서 도민들의 이동·접촉에 의한 양상으로 바뀐 특징을 보이고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로 완화되면

서 지역간 이동, 가족간 소모임과 접촉 확대에 따른 결과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속출은 백신접종을 앞둔 시기에 올 수 있는 경각심 헤아려야 전 학교 등교수업에 나설 개학시기, 봄철 나들이 등을 앞둔 시점 때문에 매우 우려된다. 이달 말 개시를 앞둔 백신접종은 지난 19일 군수송기를 통해 제주로의 백신수송 훈련을 마쳐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황이다. 다음주로 다가온 전학교 등교수업도 만반의 방역 준비로 정상 실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제주는 이 시점에 코로나19 확진자 속출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차단엔 전 도민의 백신접종과 이동·접촉자제 등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적극 동참뿐이다. 도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관계없이 적극적인 이동·접촉자제로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부 고
강주행(주)필투어) 아버지 진주 강공 민식(前 제주도청 서기관·향년 87세)께서 서기 2021년 2월 20일 10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2월 22일(월요일)
▶발인일시: 2021년 2월 23일(화요일) 오전 6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제2빈소
▶장 지: 한경면 조수리 선영
부 인 김 기 화
아 들 강 주 행
딸 강 선 희
호 상 강 관 식
며느리 김 소 영
김 현 김 백 승
사 위 김 백 승 김 정 성 김 현 호
※ 연락처 :
강주행 010-3699-1973, 강주우 010-2588-0486
강주현 010-6229-2427, 김소영 010-9840-4214
현진숙 010-9839-0486, 김주희 010-8874-3599
강선희 010-9875-2628, 강춘선 010-2890-9178
김소숙 010-4366-0844, 백승목 010-9615-1001
정성현 010-2537-9178, 유성호 010-3364-0844
강관식 010-7283-0060
※ 상주계좌
농협 980-02-256331 강주행
기업은행 010-8585-2625 강선희·백승목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양씨 순화(향년 85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2월 22일
아 들 정 신 호
딸 정 경 미
며느리 장 순 희
고 인 희
은 미 사 위 이 철 승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청주한씨 태보(향년 100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2월 22일
아 들 노 용 삼
딸 노 금 선
며느리 김 여 숙
김 혜 란
사 위 좌 남 수
이 정 의
홍 의 창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양공 삼구(향년 8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2월 22일
부 인 이 태 원
아 들 양 창 수
딸 양 화 숙
며느리 고 정 희
변 은 숙
함 은 정
오 창 진
문 필 윤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감골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격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짐.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갈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 파 농 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사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